4부 성경의 속성

성경론 18편 성경으로 충분한가 · 충족성, 새 계시와 전통

프레임 32장 성경의 충족성(343–366쪽) · 신앙고백서 1.6(1.1 끝, 1.10 함께) · 바빙크 4장 계시([91]–[97], [103]–[105]) · 오웬 6장 신적 권위를 굳히는 뒤따르는 고려들 · 워필드: 이 편 재료 없음 · 신앙고백서 1장 1.6

> ❓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셨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말을 성경처럼 믿어야 하나요?**

🧭 흐름 한눈에

이 편은 신앙고백서 1.6을 한 구절씩 푸는 프레임의 순서를 따라갑니다. 출발점은 정의입니다. 성경은 '모든 정보'가 아니라 삶 전체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담고 있고, 그 말씀을 깨닫는 데에는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성경이 스스로 “더하지 말라”고 경고한다는 점을 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이 끝났기에 계시도 최종적이라는 '특별충족성'으로 “왜 지금은 새 계시가 없는가”에 답합니다. 다음으로 성경 밖 지식은 첨가가 아니라 적용의 도구이며, 꿈이나 강한 마음 같은 내적 확신은 성경이 검증한다는 '적용의 논리'를 세웁니다. 끝으로 로마 교회의 전통, 은사주의의 새 계시, 개신교 자신의 전통주의를 차례로 살핍니다. “계시는 지금도 계속되는가”에는 다섯 갈래로 답하면서 꿈 이야기를 정리하고, '꿈은 무시할 것도 성경처럼 받들 것도 아니며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께 검증받는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 절별 정리

★ = 두 책 이상이 함께 드는 구절(이 교리의 기둥)

📜 1. 충분한 것은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프레임 32장 1-1 · 신앙고백서 1.6 앞부분)

프레임은 신앙고백서 1장 6절을 이 장의 뼈대로 삼습니다. 고백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구원, 믿음과 삶에 필요한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온 뜻'이 성경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 뜻은 성경에 분명히 적혀 있거나, 성경에서 '바르고 필연적인 추론'으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프레임은 '믿음과 삶'을 신앙생활이라는 좁은 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믿고 행할 모든 것으로 넓게 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학자에게도 배관공에게도 충분합니다. 배관 기술 같은 정보를 다 주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주기 때문입니다. 바르고 필연적인 추론은 본문에 이미 있는 뜻을 꺼낼 뿐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은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갖고, 성경에 아무것도 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에서 부활을 끌어내신 일을 고백서와 프레임이 함께 본보기로 듭니다.

1. 충분한 것은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2. '믿음과 삶'은 삶 전체를 가리킨다
3. 신학자에게도 배관공에게도 충분하다
4. 적힌 것 + 바르고 필연적인 추론
5. 바른 추론은 성경에 더하는 게 아니다

> **디모데후서 3:15-17 ★**
>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모든 선한 일을 갖추게 함. 고백서(3:15-17)와 프레임(3:16-17)이 함께 듦

> **마태복음 22:31-32 ★**
> 예수님이 추론으로 부활을 끌어내심. '필연적 추론'의 본보기(고백서 22:31-32, 프레임 22:31-33)

> **출애굽기 3:6**
> 그 추론의 출발점인 “아브라함·이삭·야곱의 하나님”(프레임)
>
>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성경은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필요한 모든 신적 말씀을 담고 있다” — 프레임

“이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온 뜻은 성경에 담겨 있다. 성경에 분명히 적혀 있거나, 성경에서 바르고 필연적인 추론으로 끌어낼 수 있다.” — 신앙고백서 1.6

📜 2. 말씀은 충분하지만 성령은 필요하다: 조명과 정황 (프레임 32장 1-2 · 신앙고백서 1.6 뒷부분)

고백서는 충족성을 말한 바로 뒤에 두 가지를 인정합니다. 첫째, 말씀을 구원에 이르도록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영의 '내적 조명'이 필요합니다. 프레임은 이 조항으로 “충족성은 성령의 자리를 없앤다”는 비판에 답합니다. 충분한 것은 '말씀'이지, 구원에 필요한 것이 말씀 하나뿐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편의 질문에 중요한 점이 여기 있습니다. 조명은 새 내용을 주시는 일이 아니라, 이미 주신 말씀을 알아듣도록 마음을 밝히시는 일입니다. 둘째, 예배와 교회 운영에는 시간, 장소, 순서 같은 '정황'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말씀의 일반 원칙 안에서 자연의 빛과 그리스도인의 분별로 정합니다. 프레임은 고린도전서 10:31 같은 성경 원리가 모든 행동을 판정할 만큼 넓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성경이 핵전쟁이나 주차 요금기를 말하지 않는다고 성경을 내려놓을 수는 없고, 남는 질문은 “어떻게 적용할까” 하나뿐입니다.

1. 충분한 건 말씀, 깨닫게 하시는 건 성령
2. 조명은 새 내용이 아니라 깨달음
3. 예배·치리의 세부는 원칙 안에서 분별로
4. 고린도전서 10:31이 삶 전체를 덮는다
5. 질문은 '쓸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 배운 사람이 나아옴. 내적 조명의 근거(고백서)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고린도전서 11:13-14

"본성이 가르치지 않느냐". 자연의 빛의 역할(고백서)

13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14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고린도전서 14:26, 40

덕을 세우며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정황을 정하는 일반 원칙(고백서)

고린도전서 14:26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4:40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있게 하라

고린도전서 10:31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경 원리가 삶 전체를 덮음(프레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내적 조명이 필요함을 인정한다. 말씀에 계시된 것을 구원에 이르도록 깨닫기 위해서다." — 신앙고백서 1.6

📜 3. 말씀에 더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는 일 (프레임 32장 2 ·

고백서는 “성령의 새 계시”라 하든 “사람의 전통”이라 하든 성경에 아무것도 더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근거로는 천사가 전해도 다른 복음이면 저주받는다는 갈라디아서 1:8-9를 듭니다. 프레임은 이 금지가 성경 자체의 가르침임을 보입니다. 언약 문서의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는 하나님만이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고 그 통치를 누구와도 나누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에 자기 말을 끼워 넣는 것은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겠다는 주장과 같습니다. 다만 프레임은 이 금지가 성경 밖 정보를 찾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고 분명히 합니다. 사람의 말을 성경과 같은 권위로 올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성경 역사에는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 말을 하나님 이름으로 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천사에게 들었다고 속인 늙은 선지자가 그 예이고, 율법은 이를 죽음에 해당하는 죄로 다루었습니다. 반대로 바울은 영감된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을 '모든' 선한 일에 갖추게 한다고 했고, 프레임은 이 '모든'이 곧 충족성이라고 봅니다.

1. 가감 금지 = 하나님만 다스리신다
2. 더하기는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는 일
3. 막는 것은 '동급의 사람 말', 정보가 아님
4. '천사에게 들었다'는 거짓 예언도 있었다
5. '모든 선한 일'이 충족성의 근거

> **갈라디아서 1:8-9**
> 천사가 전해도 다른 복음이면 저주. 새 계시를 더하는 것 금지(고백서)
>
> 8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 **신명기 4:2**
> 언약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 첨가 금지의 대표 본문(프레임. 신명기 12:32, 잠언 30:6도 함께)
>
>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요한계시록 22:18-19

성경 마지막 책의 가감 금지. 언약 문서식 경고(프레임)

18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열왕기상 13:18

천사에게 들었다고 속인 늙은 선지자. 하나님 이름을 도용한 예(프레임)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신명기 18:20

명령받지 않은 말을 하나님 이름으로 하는 선지자는 죽어야 함. 첨가의 무게(프레임)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마가복음 7:7-8, 13 ★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함. 고백서(7:7-8, 13)와 프레임(7:8)이 함께 듦

마가복음 7:7-8 7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8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사야 29:13-14

사람의 계명으로 드리는 예배를 꾸짖으심(프레임)

13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14]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디모데후서 3:16-17 ★

'모든 선한 일'에 갖추게 함. 충족성의 직접 근거(프레임·고백서)

"여기에는 언제든 아무것도 더해서는 안 된다. 성령의 새 계시라 하든, 사람의 전통이라 하든 마찬가지다." — 신앙고백서 1.6

📜 4. 그때는 그때만큼, 지금은 최종적으로: 일반충족성과 특별충족성 (프레임 32장 3 · 신앙고백서 1.1 끝 · 바빙크 4장 [94]–[97], [105])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충분하다고 한 성경은 구약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신약을 더 주셨을까요? 프레임은 여기서 두 충족성을 나눕니다. 일반충족성은 구속사의 어느 때든 그때 주신 계시가 그때의 의무에 충분하다는 원리입니다. 아담에게는 창세기 3:15의 약속으로 충분했습니다. 이 원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더하시는 것은 막지 않고, 사람이 더하는 것만 막습니다. 특별충족성은 그리스도의 구속이 끝났으니 그 구속을 증언하는 계시도 끝났고, 완성된 정경이 재림까지 최종적으로 충분하다는 원리입니다. 고백서 1.1의 "이전 방식들은 이제 그쳤다"가 이 자리와 만납니다. 바빙크도 그리스도의 사역이 끝나면서 그분의 말씀도 완성되었다고 말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것을 받아 알리실 뿐 새것을 더하지 않으시고, 재림까지 계속되는 것은 새 계시가 아니라 그 계시의 '효과'라는 것입니다.

1. 일반: 그 시대 계시는 그 시대 의무에 충분
2. 하나님은 더하실 수 있고, 사람은 못 한다
3. 특별: 구속이 끝났으니 계시도 끝났다
4. 성령은 새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을

여러 방식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심. 고백서(1:1-2)·프레임(1:1-4)·바빙크(1:1-4) 세 책이 함께 듦

히브리서 2:1-4

구원이 주님과 들은 자들과 표적으로 이미 확증됨(과거형). 사도적 증언의 완료(프레임)

> 1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 함이 마땅하니라 2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3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4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써 그들과 함께
> 증언하셨느니라

베드로후서 1:3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주심(프레임)

>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앎으로 말미암음이라

창세기 3:15

아담에게 충분했던 초기 계시. 일반충족성의 예(프레임)

>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요한복음 16:13-14 ★

성령은 진리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알리심. 고백서(1.5에서 16:13-14)와 바빙크(16:14, 새 내용을 더하지 않으심)

요한복음 7:39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뒤 성령이 오심. 성자의 시대에서 성령의 시대로(바빙크)

>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뜻을 계시하시던 이전 방식들은 이제 그쳤기 때문이다." — 신앙고백서 1.1

📜 5. 성경 밖 지식은 첨가가 아니라 적용: "하나님이 파리로 가라 하셨다"면 (프레임 32장 4-5 · 신앙고백서 1.10)

충족성 때문에 성경 밖 정보를 쓰면 안 된다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레임은 그러면 생각하는 일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답합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실 때 나무와 열매에 대한 일상 지식을 전제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꾸짖으실 때, 본문을 몰라서가 아니라 눈앞의 현실에 적용하지 않아서 꾸짖으셨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은 적용할 줄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적용은 '도덕적 삼단논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의 원리("도둑질은 잘못이다")와 상황의 사실("횡령은 도둑질이다")을 묶어 판단("횡령은 잘못이다")을 얻는 것입니다. 규범이 되는 전제는 언제나 성경이 주고, 사실은 대개 일반계시에서 옵니다. 그리고 내면의 확신은 성경이 검증하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이 파리로 이사 가라 하셨다"고 하면 성경으로 보여 줘야 한다는 것이 프레임의 예입니다. 고백서 1.10도 "개인의 영적 주장"을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께 판결받을 대상으로 둡니다.

1. 성경 밖 정보를 막으면 생각이 불가능하다
2. 성경을 안다 = 적용할 줄 안다
3. 원리(성경) + 사실(상황) → 판단
4. 규범적 전제는 모두 성경이 준다
5. 내면의 확신은 성경이 검증한다

[2]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3]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궂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요한복음 5:39-40

성경을 연구하되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께 오지 않음. 적용의 핵심 실패(프레임)

[39]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40]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로마서 15:4 ★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를 가르치려는 것. 고백서(1.1, 1.8)·프레임·바빙크가 모두 듦. 프레임은 '성경의 목적은 적용'의 근거로 씀

출애굽기 20:14

간음하지 말라. 성경이 규범적 전제를 주는 예(프레임)

간음하지 말라

마태복음 5:27-28

음욕은 마음의 간음. 성경이 사실 전제까지 주는 드문 예(프레임)

[27]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8]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1

영을 다 믿지 말고 시험하라. 개인의 영적 주장 검증(고백서 1.10)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사야 8:20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비추어 보라. 최종 표준(고백서 1.8)

>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공의회의 모든 결정, 옛 저술가들의 의견, 사람의 가르침, 개인의 영적 주장도 그 앞에서 검토받아야 한다.” — 신앙고백서 1.10

📜 6. 전통을 성경 곁에 세울 때: 로마 교회와 은사주의, 그리고 성경과 교회 (프레임 32장 6-1 · 바빙크 4장 [103]–[105])

고백서가 겨냥한 반대자는 둘입니다. 전통을 성경과 같은 권위로 놓는 로마 교회, 그리고 성경과 같은 권위의 새 계시를 주장한 재세례파 열광주의입니다. 프레임에 따르면 로마 신학은 성경과 전통을 계시의 '두 근원'으로 보다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한 근원'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한 근원은 전통이고 성경은 그 일부라서, 여전히 충족성과 맞지 않습니다. 열광주의의 후예인 은사주의는 대부분 정경이 닫혔다고 인정하면서, '새 계시'가 성경보다 낮다고 말합니다. 프레임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성경보다 권위가 낮을 수 있느냐고 되묻습니다(그루뎀과의 논쟁 세부는 이 책 15장으로 미룹니다). 바빙크는 다른 각도에서 균형을 줍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앞 세대에게서 받는 존재이니 넓은 의미의 전승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성경과 교회는 떼어 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자가 아니라 영”을 외치며 성경과 계시를 떼어 놓는 쪽을 그는 더 위험한 오류로 봅니다. 사도들의 말을 통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알 수도 사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1. 로마: '두 근원'→'한 근원', 주인은 전통
2. 은사주의: 정경은 닫혔는데 새 계시는 있다?
3. '하나님 말씀인데 성경보다 낮다'는 모순
4. 바빙크: 전승과 교회는 성경과 함께 간다
5. 성경을 걷어낸 '영'은 그리스도를 잃는다

예수님의 일이 다 기록되지 않음. 계시 전체를 성경 기록과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진 확실한 계시는 성경뿐(바빙크)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디모데전서 6:7

세상에 가져온 것이 없다. 앞 세대에게서 받는 전승의 원리(바빙크)

우리가 세상에 아무 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매 또한 아무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요한복음 17:20-21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만 그리스도께 닿음(바빙크)

20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21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한일서 1:3

사도들과의 사귐이 곧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귐(바빙크)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성경은 교회의 빛이고, 교회는 성경의 생명이다." — 바빙크

"오직 성경만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갖고 있는 유일하고 확실한 계시다." — 바빙크

📜 7. 계시는 지금도 계속되는가: 꿈 이야기 (프레임 32장 6-2 · 바빙크 4장 [91]–[97])

“계시는 지금도 계속되는가?”라는 물음에 프레임은 “어떤 의미에선 그렇고 어떤 의미에선 아니다”라고 답하며 다섯 갈래로 나눕니다. 첫째, 창조를 통한 일반계시는 계속되며, 그 일부는 직관이나 꿈, 예감처럼 의식 아래의 경로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 하나님 지식일 수 있지만 성경의 인격적 말씀과 같지 않고, 정경에 더할 수 없으며, 성경 권위 아래 있습니다. 놀랍게 들어맞은 예감에 대해서도 프레임은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만 말하겠다며 조심합니다. 둘째, 구속사를 이끄는 언약적 특별계시는 그리스도로 멈췄습니다. 셋째, 성령이 성경을 신자의 삶에 적용하시는 일은 계속됩니다. 넷째, 설교도 성경과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섯째, 재림 때의 드러남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바빙크는 성경 시대에 하나님이 실제로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셨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계시의 대부분은 성령의 내적 조명으로 주어졌다고 하고, 주술 같은 현상의 힘은 실재하지만 성경이 절대 금한다고 말합니다. 은사가 사도 시대 뒤에도 이어지느냐는 문제는 '부차적'이라고 봅니다. 은사가 있든 없든 성경에 기록된 계시 내용은 늘지도 줄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1. 일반계시는 계속, 꿈·예감도 그 경로일 수
2. 그래도 성경과 동급이 아니라 성경 아래
3. 언약적 특별계시는 그리스도로 끝났다
4. 성령의 적용은 계속, 설교는 다른 의미의 말씀
5. 바빙크: 은사 지속 문제는 '부차적'

> **민수기 12:6**
> 환상과 꿈으로 자신을 알리심. 성경 시대 계시 방식의 하나(바빙크)
>
>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 **신명기 18:10-11**
> 점술과 신접을 절대 금하심. 초자연 현상이 다 하나님에게서 오지는 않음(바빙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마태복음 24:24

거짓 그리스도들의 표적과 기사(바빙크)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태복음 11:27

아들이 계시하는 사람만 아버지를 앎. 지금도 이어지는 '깨닫게 하심'(프레임)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3:8

예언은 그친다. 바빙크는 특별한 은사로서의 예언이 새 예루살렘에서 그친다고 읽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누가복음 17:30

인자가 나타나는 날. 아직 오지 않은 계시(프레임)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어떤 의미에선 그렇고 다른 의미에서 그렇지 않다." — 프레임

📜 8. 더 '특별한 말씀'을 찾아 헤매는 마음에게 (프레임 32장 6-2 셋째 · 오웬 6장)

들으라”고 처방합니다. 그런데 둘 다 정보를 더 찾는 지성 중심의 해법이라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새 정보가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이 주시는 영적 성장과 깨달음입니다. 오웬 6장은 성경의 신적 기원을 보이려는 다른 목적으로 쓰였지만, 같은 자리를 비춥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풀지 못하는 세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지, 죄책을 씻고 어떻게 화목할지, 참된 복이 무엇인지입니다. 오웬은 성경이 이 질문들에 더 물을 필요가 없을 만큼 답하며, 그 절정은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속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항구를 거부하는 사람은 다시 바다로 나가 보라고, 그러면 혼란이 어김없이 돌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만 오웬 6장은 꿈이나 새 계시 주장을 직접 다루지 않으므로, 이 연결은 우리가 놓는 적용입니다.

1. 개혁파도 은사주의도 '정보 더하기'에 기울 수
2. 필요한 것은 새 정보가 아니라 깨달음
3. 영혼의 세 질문: 예배·화목·참된 복
4. 성경은 더 물을 필요 없게 답한다
5. 항구를 떠나면 혼란이 돌아온다

> **에베소서 1:17**
> 지혜와 계시의 영. 신자에게 필요한 것은 새 정보보다 영적 인식(프레임)
>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 **로마서 1:18**
> 온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 오웬이 직접 지목한 출발점
>
>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 **로마서 3:21-26**
> 그리스도의 피로 이룬 속죄. 죄책 문제에 대한 성경의 답(오웬이 직접 지목)
>
> 21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항구에 닻을 내리지 않겠다는 사람은, 감히 그럴 수 있다면 다시 바다로 나가 보라." — 오웬

"다른 데서 헛되이 찾다가 생각만 미련해졌던 그것을, 나는 찾았다!" — 오웬

📜 9. 개신교도 전통을 쌓는다: 금주, 서명, 예배 스타일 (프레임 32장 6-3)

프레임은 고백서가 다룬 두 전선에 세 번째 전선을 더합니다. 개신교 자신의 전통주의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전통을 다 버리지 않았지만, 성경에 어긋나거나 성경을 보충한다고 여겨진 것은 걷어 냈습니다. 충족성은 성경 밖 생각을 신자의 양심에 강요하지 못하게 막는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개신교도 오백 년 가까이 지나며 좋은 전통과 나쁜 전통을 함께 쌓았습니다. 미국 근본주의의 금주 요구는 술 취함을 정죄하는 성경에 비추어 이해할 만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나에서 포도주를 내신 일을 보면 모두가 지킬 규칙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경으로 고칠 수 없을 만큼 엄격한 신앙고백서 서명은 사람의 문서가 성경과 함께 교회를 다스리게 만듭니다. 특정 예배 음악이나 예전을 "더 위엄 있다", "초대교회에 더 가깝다"는 이유로 모두의 의무로 삼으면, 성경이 허용한 것을 정죄하고 명하지 않은 것을 명하게 됩니다. 프레임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조차 성경의 자리를 넘보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2. 금주는 개인 절제, 보편 규칙은 아님
3. 고칠 수 없는 고백서 서명은 문제
4. 취향·역사가 성경을 대신하면 안 된다
5. 고백서도 성경의 자리를 넘보면 안 된다

> **요한복음 2:1-11**
> 가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를 주심. 금주는 성경이 정한 보편 규칙이 아님(프레임)
>
> 1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 2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3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4 예수께서 이르시되
>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5 그의
>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 하니라 6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여섯이
> 놓였는지라 …

> **디모데전서 5:23**
> 위장을 위해 포도주를 조금 쓰라는 권면. 같은 근거(프레임)
>
>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 조금씩 쓰라

> **마가복음 7:8 ★**
> 사람의 전통이 계명을 밀어내는 위험. 이 절에서 프레임은 장절 없이 '바리새인에 맞선 예수님'으로 언급

🗣️ 다섯 목소리

책	이 편의 질문에 대한 답(한두 문장)	특별히 강조하는 것	비워 둔 것

책	이 편의 질문에 대한 답(한두 문장)	특별히 강조하는 것	비워 둔 것
	수 없다(1.6). 꿈이든 무엇이든 개인의 영적 주장은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께 판결받는다(1.10).	조명과 정황이라는 단서	지식의 자리. 프레임(특별충족성, 적용의 논리)이 메운다
프레임	꿈이나 예감은 일반계시의 한 경로로서 실제 하나님 지식일 수 있다. 그러나 성경과 같은 권위의 말씀은 아니며, 성경으로 검증받아야 한다.	정보가 아니라 말씀의 충족성, 일반·특별충족성, 적용의 논리, 개신교 전통주의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어떻게 아는가(자증)는 다루지 않음. 고백서 1.5와 오웬 앞 장들의 몫. 그루뎀 논쟁 세부는 이 책 15장으로 미룸
바빙크	성경 시대에 하나님은 실제로 꿈으로도 말씀하셨지만, 객관적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결되었다. 은사가 있든 없든 성경의 계시 내용은 늘지 않고, 성령은 그리스도의 것을 알리실 뿐이다.	계시와 성경, 성경과 교회를 떼지 않기. 계시는 교리이자 생명	개인의 꿈을 실제로 분별하는 방법. 이 장은 로마의 전통론을 직접 다루지 않음. 프레임(적용의 논리)과 고백서 1.6이 메운다
워필드	이 주제를 다루지 않음(이 편 재료에 없음). 프레임과 바빙크가 메운다.	—	기적 은사 중지를 다룬 것으로 알려진 별도 책(Counterfeit Miracles, 1918)은 특집 재료 밖
오웬	6장은 꿈이나 새 계시 주장을 직접 다루지 않는다. 다만 성경이 영혼의 가장 깊은 세 질문에 더 물을 필요가 없을 만큼 답한다고 말해, 성경을 떠나 더 찾을 이유가 없음을 보여 준다.	그리스도의 속죄가 주는 '만족', 증거는 기초가 아니라 버팀목	새 계시 주장에 대한 직접 비판. 고백서 1.6·1.10과 프레임 6-2가 메운다

히브리서 1:1-2가 세 책의 공통 기둥입니다.

- 고백서가 “그쳤다”고 짧게 말한 이유는 프레임과 바빙크가 구속사로 풀어 줍니다. 구속이 끝났으니 그 구속을 해석하는 계시도 끝났다는 것입니다.
- 고백서가 비워 둔 “그럼 내 꿈과 강한 마음은 뭔가?”는 프레임이 메웁니다. 그것은 일반계시의 경로일 수 있고, 성경이 검증합니다. 바빙크는 은사 문제를 '부차적'으로 두어 논쟁의 온도를 낮춥니다.
- 전통 문제에서는 역할이 나뉩니다. 고백서와 프레임은 전통을 성경과 동급으로 올리는 것을 막고, 바빙크는 성경과 교회를 떼지 않는 균형을 잡으며, 프레임은 그 잣대를 개신교 자신의 전통에까지 들이댑니다.
- 오웬은 논쟁이 아니라 목회의 자리를 채웁니다. 더 찾아 헤매는 마음에, 이미 주신 답을 보여 줍니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충족성(시리즈 공통)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 믿음과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다 들어 있어서,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더할 필요가 없다는 성경의 성질.

영감(시리즈 공통)
하나님이 성경 저자들을 감동하셔서 그들이 쓴 글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신 일.

정경(시리즈 공통)
원래 '잣대'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어 믿음과 삶의 규칙이 되는 성경 66권(구약 39권, 신약 27권)의 목록.

바르고 필연적인 추론
성경에 글자로 적혀 있지 않아도 본문에서 반드시 따라 나오는 결론. 성경과 같은

성령의 조명

성령께서 이미 주신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이도록 마음을 밝혀 주시는 일. 새 계시를 주시는 일과 다르다.

정황

예배 시간, 장소, 순서처럼 성경이 일일이 정하지 않아서 말씀의 일반 원칙 안에서 상식과 분별로 정하는 세부 사항.

일반충족성 / 특별충족성

그때마다 주신 계시가 그 시대의 의무에 충분하다는 원리 / 그리스도의 완성된 구속과 함께 닫힌 지금의 정경이 재림까지 최종적으로 충분하다는 원리.

일반계시 / 특별계시

창조와 섭리, 역사, 양심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계시 /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 지금은 성경으로 주어진 구원의 계시.

열광주의

성령이 성경과 같은 권위의 새 계시를 지금도 직접 주신다며 그것을 기록된 말씀과 나란히 또는 위에 두던 종교개혁 시대의 급진 흐름. 고백서 1.6이 겨냥한 상대 가운데 하나다.

전통

성경 밖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온 가르침과 관행. 고백서와 프레임이 막는 것은 그것을 성경과 같은 권위로 올리는 일이고, 바빙크는 앞 세대에게서 받는 넓은 의미의 전승 자체는 사람 삶의 자연스러운 법칙으로 본다.

💬 청년의 삶으로

✅ 이 편의 결론

- 성경은 '모든 정보'가 아니라 삶 전체에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고, 바로 흐름으로 끝이내 결론도 그 안에 들다.

- 그리스도의 구속이 끝났으니 계시도 최종적이다. 새 계시라 하든 사람의 전통이라 하든 성경에 더할 수 없다.
- 꿈, 예감, 강한 마음은 무시할 것도 성경처럼 받들 것도 아니다.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께 검증받는다.
- 성경 밖 지식은 성경을 적용하는 도구이고, 성경은 그 모두를 다스리는 맨 위의 규범이다.
- 충족성은 남의 전통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전통에도 들이대는 잣대다.

📚 이 편의 책별 정리 노트

- 신앙고백서 · 1장 성경에 관하여 (10절, 1647 영문)
- 프레임 · 성경의 충족성
- 오웬 · 6장 신적 권위를 굳히는 뒤따르는 고려들
- 바빙크 · 4장 계시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B. B.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새물결플러스)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